

글 \_ 이병희 선임연구원 · 차세대정보시스템연구실 · bhlee@daegu.ac.kr

### 납본제도

### Legal Deposit System

학위논문을 제출할 때, 연구자들은 동시에 여러 부의 논문을 제출 할 것을 요구받는다. 왜 여러 부가 필요한 것일까? 그것은 납본제도 때문이다.

납본제도란 도서 등의 자료를 생산하거나 출판하는 개인이나 단체로 하여금 정해진 기간 내에 일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지정된 기관에 그 도서의 일정부수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법적 제도를 말한다. 국가 또는 전 인류의 지적 유산인 출판물을 수집 보존하는 것은 국가도서관의 가장 중요한 의무이며, 이것을 지원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납본제도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석사나 박사 학위논문은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서적은 도서관법 12조 3항의 규정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에 2부(초판 및 수정증보판), 국회사무처법 제14조 2항에 따라 국회도서관에 2부(중판, 학습참고서, 아동도서는 제외)를 납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도서관은 납본을 전제로 국가 장서의 3A, 즉 수집(Acquisition), 보존(Archiving), 접근(Access)을 구현하고 있으며 출판물의 체계적 수집 보존을 통해 국가정보력을 확보하고 있다.

### 메타데이터 레지스트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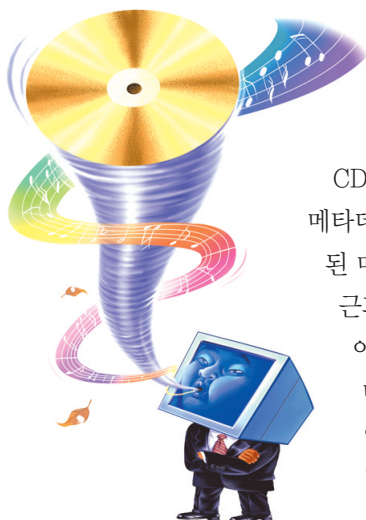
### MetaData Registry

메타데이터는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data about data)’다. 즉, 실제로 저장하고자 하는 데이터(텍스트, 비디오, 오디오 등)는 아니지만, 이 데이터에 대한 개략적 정보(제목, 저자, 날짜) 및 이 데이터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정보로 제공하는 데이터를 나타내는 말이다.

현재 사용되는 여러 표준 메타데이터 가운데 대표적인 것들에는 오래전부터 목록용으로 사용되었던 MARC, 전자자원을 기술하기 위한 Dublin Core, 지리정보시스템에서 사용하는 CSDGM, 예술작품을 위한 CDWA, 미국연방정부의 공개된 정보를 기술하기 위한 #GILS 등이 있다.

메타데이터 레지스트리(등록소)는 이러한 메타데이터의 등록과 인증을 통하여 표준화된 메타데이터를 유지,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그리하여 데이터에 대한 상호 접근과 사용을 촉진하고, 메타데이터의 명세와 의미의 공유를 하고 있다.

이러한 메타데이터 레지스트리는 ISO 11179로부터 발전되어왔다. ISO 11179는 메타데이터의 저장, 등록뿐 아니라 관리 모델까지 제공하는 국제표준으로써, 데이터 요소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충분히 나타내 줄 수 있는 구조를 정의하고 메타데이터 레지스트리 구축 및 운영 원칙을 제공하고 있다.



## 오픈액세스

## Open Access



세계의 각 도서관은 학술지의 가격인상과 저작권 및 라이선스 문제로 인해 학술지에 실린 정보의 서비스에 많은 곤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등장한 것이 오픈액세스다. 오픈액세스란 “법적, 경제적, 기술적 장벽 없이 전 세계 이용자 누구라도 자유롭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연구 성과물의 생산자와 이용자가 정보를 공유”하는 것으로서, 학술 연구정보를 관련 기관 및 이용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개념이다.

오픈액세스는 인터넷의 확산과 더불어 학술정보를 생산하는 교수, 학생, 연구자들이 자신의 성과물을 전자 형태로 발간할 수 있게 되고 이를 인터넷에 무료로 공개함으로써 이용을 촉진하거나 연구 성과물의 영향력지수(Impact factor)를 높일 수 있게 됨에 따라 생겨났다. 또,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 및 학술 저작물을 무료 또는 저가로 유통시킬 수 있게 되면서, 오픈액세스는 비상업적이며 자율적인 모습으로 학술정보유통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았다.

최근 OECD 과학기술정책위원회에서는 공공기금으로 제작된 연구데이터에 대해 오픈액세스 이용을 장려하고 있으며, 미국 내의 48개 학협회 및 대학출판부가 오픈액세스를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영국 의회 과학기술분과위에서도 이를 지지하는 정책을 제시했다.

## 디지털 아카이빙

## Digital Archiving

원래 아카이빙이란 말은 공적인 기록의 보존 과정이나 컴퓨터 파일의 일시적 백업(backup)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디지털 정보자원의 이용확대로 자료의 원문확보 및 보존의 필요성이 증가하게 되면서, 최근에는 디지털 문헌을 안전하게 보존하는 활동을 의미하는 용어로 쓰이고 있다. 즉, 시간이 경과되어도 언제나 디지털 문헌에 접근할 수 있고 진본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래의 이용자가 현재와 똑같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디지털 아카이빙이라 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정보자원 유형별 디지털 아카이빙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효과적인 디지털 아카이빙을 위한 기술적, 정책적, 경제적인 이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립중앙도서관, 국가기록원(옛 정부기록보존소) 및 지방기록보존소들이 전자문서관리 업체들과 활발히 디지털 아카이빙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디지털 아카이빙 시스템 구현을 위한 국제 표준으로 자주 언급되는 OAIS 참조모델(ISO 14721: 2002)은 국제 표준화기구인 ISO에서 제정한 것으로 아카이빙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술적 권고안이다.

